



독도서 일본 규탄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등 경북도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독도 부둣가에서 '일본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정우용기자

일, 교과 해설서에 '독도 자국 영토' 명기

주일대사 소환 강력 대응

韓·日관계 급랭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내용을 명기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일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관련기사 3·20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실시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관한 설명회에서 한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

제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사회과 해설서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설서는 독도 관련 부분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 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했으나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마치 독도를 불

법 점거하고 있는 듯이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비취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영유권 명기에 강력 항의하는 등 대일 전면대응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시계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한데 이어 권철현 주일대사를 16일께 일시 귀국시킬 계획이며 각종 국제회의와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독도 침탈사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여야 정치권과 교원·시민 단체들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해설서 명기는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항의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임대아파트 관리비 3배 차이

광주·전남 41곳... 단지마다 '천차만별'

영세민 영구임대가 일반임대보다 비싸

광주·전남지역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단지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세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일반 임대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입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분 광주시 북구 두암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3.3㎡당 공동관리비는 2천78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비비의 경우 동천1단지(3.3㎡당 277원)인 반면, 두암4단지 등들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관리비와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및 수선유지비 등 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6개 항목의 비용이다.

이는 광주에서 공동관리비를 처음 공개한 22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북구 동림동 동천마을1단지 6월 분 공동관리비 1천132원의 2.5배 수준이다. 전용면적 44㎡(13.3평)의 경우 동천1단지의 공동관리비는 1만5천56원이지만 두암4단지는 같은 면적이라도 3만6천974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처럼 단지별 관리비 격차가 큰 것은 관리직원의 임금이나 경비비 등 인건비를 임의대로 책정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경비비의 경우 동천1단지가 3.3㎡당 277원인 반면, 두암4단지는 1천86원으로 3.9배나 높게 책정됐다.

일반관리비도 두암4단지가 1천604원으로 동천1단지(601원)에 비해 2.6배나 높았다. 일반관리비는 관리실 직원들의 임금 및 운영비가 75~8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관리실

운영에 대한 입주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광주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일반 공공·국민임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영구임대는 입주인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인 영세민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는 두암4단지(이하 ▲) 두암2단지(2천703원) ▲우산3단지(2천475원) ▲각화(2천438원) ▲하남1단지(2천340원) 등으로 관리비 상위 5위권 아파트들이 모두 영구임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상황은 전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전남에서 공동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은 여수지역 영구임대인 여천무선1단지(3.3㎡당 3천468원)에 달했다.

이는 전남에서 관리비가 가장 낮은 여수무선3단지(1천290원)의 2.7배 수준으로, 광주 동천마을1단지(1천132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높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관리비 상·하위 아파트 (단위: 원/3.3㎡)		
상위 5개		
(광주)	영구임대	2,780
광주 두암4	영구임대	2,703
광주 두암2	영구임대	2,475
광주 우산3	영구임대	2,438
광주 각화	영구임대	2,340
광주 하남1	영구임대	2,340
하위 5개		
광주 동천마을1	국민임대	1,132
광주 동천마을6	국민임대	1,205
광주 죽림마을	국민임대	1,228
광주 진월A-3	국민임대	1,241
광주 연제	국민임대	1,264
전남		
상위 5개		
여천무선1	영구임대	3,468
여수 미평1	영구임대	3,201
나주 용산1	영구임대	2,775
순천 조래5	영구임대	2,640
여수 문수1	영구임대	2,600
하위 5개		
여수 무선3	국민임대	1,290
무안 회룡	국민임대	1,498
목포 옥암	국민임대	1,508
순천 연향3(기)	국민임대	1,726
목포 용해2	국민임대	1,825

읽기·셈하기 못하는 학생 2천명

광주·전남 지난해보다 줄어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이 없는 초·중·고교생들이 광주·전남에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생 1천명 중 3.7명에 해당된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올 3월 실시한 기초학습 진단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수가 광주 613명, 전남 1천417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초·중·고교 전체 학생수는 광주 26만3천979명, 전남 28만8천935명이다.

광주지역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초등학생 읽기 260명, 쓰기 206명, 셈하기 339명 ▲중학생 읽기 67명, 쓰기 55명, 셈하기 121명 ▲고등학생 읽기 12명, 쓰기 11명, 셈하기 2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읽기·쓰기·셈하기 등 3개 항목 중 단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학생은 초등학생 442명, 중학생 149명, 고등학생 22명이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389명)보다 늘었고, 중학생(193명)과 고등학생(27명)은 다소 감소했다.

전남지역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초등학생 읽기 473명, 쓰기 430명, 셈하기 613명 ▲중학생 읽기 369명, 쓰기 442명, 셈하기 551명 ▲고등학생 읽기 151명, 쓰기 192명, 셈하기 253명 등이었다. 전남은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읽기 781명·쓰기 746명·셈하기 1천121명)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가 줄었고 중학생(읽기 478명·쓰기 547명·셈하기 706명)과 고등학생(읽기 159명·쓰기 236명·셈하기 296명)도 감소했다. /최재호·정상필기자 lion@

금강산 피살 고의성 여부도 조사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는 사건의 우발성 여부를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 문제와 관련, "진상이 밝혀져야 의도적 사건인지, 우발적 사건인지 규명될 수 있다"며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조사를 거쳐 의혹이 명쾌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북 당국간 출입 체계에 관한 합의서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 출입체계에 근거해서 당국 차원의 합동 진상조사를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황부기 통일부 회담연락처원부장을 단장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8개 기관·부처 전문가들로 조사단이 구성돼 1차 회의를 가졌다"며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국내 관련자를 중심으로 현재 사실 확인중에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조속히 완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4일 금강산 여성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 사태의 원만한 수습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계속 중단키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

광주용봉2 Humansia 5년임대 입주자 모집

신방입주 2008년 8월 4일 - 6일

당락규모 총 263호
81㎡형 65호, 112㎡형 198호

전면주택 7월 19일 개관(사업지구내)

임대문의 견본 주택 02-361-6801
도시개발사업팀 02-360-0668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유망학원 장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IOPE